

국내 맞벌이 부모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강기정** 박수선***

요 약

최근 한국사회의 맞벌이 가족은 점점 증가하여 2006년 현재 43.9%로 보편화된 가족형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및 가족 대상의 전문적인 실천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전반적인 관련연구 동향파악,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맞벌이를 주제로 가족, 아동, 여성학 분야 등에서 발표한 논문 103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맞벌이 주제의 논문들이 주제별,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한다. 두 번째, 전체 논문들이 사용한 연구방법들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 결과 첫번째,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맞벌이 주제 논문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상적 접근(적용)부분의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48.5%), 다음으로 이론적 접근(33%), 기타(14.6%), 실제적 접근(3.9%) 순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활용부분의 연구가 가장 저조하였다. 두번째 전체 논문들이 사용한 연구방법들을 살펴보면 설문조사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방법들은 비교적 연구에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실천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방법 3.9%로 매우 저조하여 실제적인 연구방법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접학문들과의 연계 및 발전적 측면, 실천적 분야에 대한 접근과 현장과의 연계 측면,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 부분으로 나누어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맞벌이 부모, 연구 동향 분석

논문제출일 : 2007. 10. 12.

최종심사일 : 2007. 12. 07.

* 본 논문은 2007년 10월 20일 개최된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백석대학교 기독교 복지학과 교수

***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주저자

Corresponding Author : Park, Su-Sun, Dep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17-2, Jayang-dong, Dong-gu, Deajun-si, Korea, 300-718. E-mail : sunybono@empal.com

I. 문제 제기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여러 사회적 변화는 가족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의 증대와 핵가족화에 따른 역할변화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기혼여성의 취업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맞벌이 가족은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된 가족형태가 되고 있다¹⁾.

참여정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하면(2006) 여성의 사회참여 요구 증대 뿐 아니라, 고용불안정 심화 및 고령화시대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남성가장 단독부양(male breadwinner/mom at home)의 사회구조에서 맞벌이 부부 모델 확산과 맞벌이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이전까지의 취업주부가 가정일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문화는 맞벌이 가족의 갈등과 기능 약화를 초래하므로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과 가족관계 정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을 지원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사회전반적인 의식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사고들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가족상황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정서적 혼란스러움과 함께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즉 취업주부는 높은 자아가치인식과 사회활동으로부터의 보상, 심리적 보상, 경제적 이로운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양식에 만족하지만, 아직은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해 온 가부장적 사고하에서의 ‘주부’ 역할로 인해 이중역할 기대와 수행에 따른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이는 현재 맞벌이부부 및 가족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맞벌이를 주제로 다루는 대표적인 학문들은 가족학, 아동학, 가정관리학, 여성학, 소비자 경제학, 주거학 등이다. 주로 맞벌이 부부의 현황과 문제들, 그리고 정책적 제안의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관련한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 접근과 대상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적응분야의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즉 맞벌이 가족 모델을 기초로 가족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1)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50.1%를 차지하였고, 2006년 현재 맞벌이 부부는 43.9%로 나타나고 있음(사회통계, 2006).

2)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의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맞벌이’와 관련한 목록 검색결과 2007년 현재 총 103편으로 본연구의 연구대상 논문으로 선정됨.

서, 이제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지적인 실천 방안이 개발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맞벌이 가족의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을 위한 실제적인 접근의 첫 계로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맞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지와 저서에 발표된 맞벌이 부부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맞벌이 부부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과를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실상 현대 사회적 상황에 의해 등장하여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맞벌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학계의 연구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맞벌이 부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실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차원의 실천적 접근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미리 점검하고, 차후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한국의 맞벌이 실태

한국은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최근 사회통계 자료(2006)에 의하면 지난 한달 동안 남편과 부인 모두가 평소 해오던 일을 계속 하였거나 새로 일을 시작한 부부(맞벌이)는 43.9%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취업에 대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가 85.5%로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8.7%)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 여성취업에 관한 호감도와 애착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9월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평등한 일·출산·양육’이란 타이틀로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³⁾에 의하면 ‘출산·양육과 관계없이 가능한 한 오래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20.4%), ‘가족과 사회가 출산·양육을 지원해준다면 되도록 오래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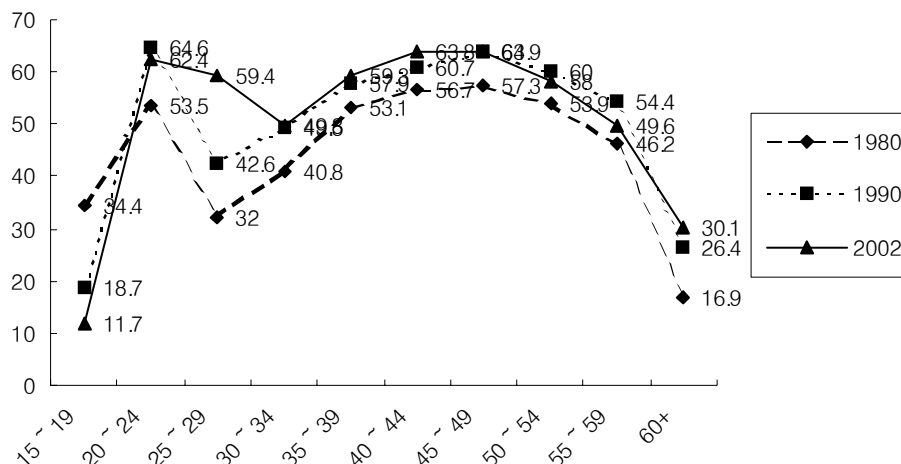
3)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 1,475명(여성 886명, 남성 58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와 52건의 심층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임.

생활을 하고 싶다(59.2%) 등의 결과가 나타나 한국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준다.

맞벌이 가족을 가구주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5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46.7%, 30대 40.1% 순으로 다수의 가족이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⁴⁾상 자녀교육기에 해당되었다.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다양한 가족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맞벌이 가족의 여성이 갖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45.9%)’으로 2002년 38.8%에서 2006년 45.9%로 7.1%p 높아졌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육아부담’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의 육아부담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M자(字)형”곡선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즉, 미혼 비율이 높은 20~24세에 참가율이 정점을 이루다가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5세부터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30~34세에 이르러 낮아지는 그래프상의 M곡선이 그것이다([림 1] 조). 선진국형 여성취업의 형태는 ‘역 U자(II)형’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아직도 후진국 형태인 ‘M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이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4)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임.

5) 조은주, 『여성의 직업의식과 출산파업』 미즈워크넷, 2004

이러한 맞벌이 가족의 상황은 최근 가족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시급한 변화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최근 2~3년 사이 발표된 국내의 주요 국가통계를 분석해 제시한 ‘2007 대한민국 행복테크’에 의하면 가정과 직장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의 행복감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여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근로시간과 가정생활, 자기계발, 대화 및 교제, 기부·봉사 등의 분야에서 행복한 한국을 저해하는 5대 결핍요소를 선정, 각각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 중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의 실정은 맞벌이 주부의 역할 과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맞벌이 주부의 일일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28분, 맞벌이 남편은 32분이며, 맞벌이 가구 남편과 비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31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와 함께 가사분담에 대해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 중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2.4%로 나타났으며,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비율은 65.4%,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는 2.3%였다. 아울러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남편 7.5%, 부인 7.9%에 불과했다(통계청, 2006).

이러한 상황에서 맞벌이 가족에게 알맞은 ‘일-가정의 역할 균형과 조화’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가족의 상황에 적합한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이 가능한 ‘가사노동의 황금분할율’ 설정은 소원한 일이 된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족 주부들이 육아, 출산, 양육 등의 가족영역과 직장업무를 전담하는 이중고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개인 스트레스 증가와 병리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맞벌이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소로 여겨진다.

이제 맞벌이 가족에 대한 개인과 가족, 사회전반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서적, 교육적, 제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맞벌이 가족의 문제 상황 해결을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학계, 기업, 정부 등 가족을 둘러싼 주요 환경들의 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긍정적인 관계증진방법과 막중한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부모역할수행이 가능한 방법 등을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맞벌이를 주제로 가족, 아동, 여성학 분야 등에서 발표한 맞벌이 주제 논문들의 연구 경향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갖는다.

【연구문제 1】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맞벌이 주제의 논문들이 주제별,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한다.

【연구문제 2】 전체 논문들이 사용한 연구방법들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논문의 범위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각종 학회지에 발표된 맞벌이를 주제로 한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검색방법은 국회도서관⁶⁾의 논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맞벌이와 관련하여 산출된 연구목록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세부적인 분석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맞벌이를 주제로 다룬 연구영역 중 가족과 아동을 다루는 분야로는 가족학, 아동학, 가정관리학, 가정경제학, 여성학 등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장 많이 논의된 분야는 가족, 아동 분야로 부부관계에서부터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아동복지감 등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가정관리학 및 여성학 분야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 및 공평성인지, 직업만족도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연구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은 가족학, 소비자학, 아동학, 여성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서, 주제가 일정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하위전공자들의 공동연

6) <http://www.nanet.go.kr/>

구 등으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이 영역들의 중복은 맞벌이 부부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시적 관점과 모두 연관되는 개념이며, 하위전공간의 연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 하위연구 영역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대체로 우선 연구자의 전공을 고려하고 종속변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연구자료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논문의 범위는 맞벌이 가족전체와 그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가족학, 아동학, 소비자학, 여성학 등에 연구한 논문들로 규정한다.

3. 연도별 맞벌이 논문 및 분석 기준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현재 연구 접근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연구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맞벌이 부부와 관련하여 발표된 103편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동향의 준거를 설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맞벌이’ 주제의 연구동향을 살핀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맞벌이’와 연관된 분야인 가족과 아동, 가정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최근의 참고문헌(공인숙, 2007; 이무영, 2000; 이명숙, 2007; 이승미, 2007; 정영금, 2007; 조재순, 2007)을 고찰한 결과 이론과 실천, 활용 등의 분야로 나뉘어져있어 본 주제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며 현상파악이 용이한 분석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⁷⁾.

7) 이 분석틀은 정영금(2000), 이승미(2006)의 연구틀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표 1> 맞벌이 대상 연구 분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주제
이론적 접근(이론)	삶의 질 및 만족도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어머니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직업만족도, 역할갈등, 성역할태도
	아동복지감	복지감, 척도 개발, 관련요인
	공평성	공평성인지, 결정요인
	생활실태	전반적인 실태, 인구구조와 취업실태
	건강가정	가족건강성
대상적 접근(적용)	자녀양육	애착안정성, 양육분담, 맞벌이 주말부부 양육, 양육스트레스, 양육동향, 양육실태, 직장보육 태도 및 기대
	부모역할	부모역할 갈등 실태, 남성역할 갈등, 대응전략, 부모역할긴장, 역할기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부부역할기대 및 갈등, 부부권력, 응집성 및 적응력, 손자녀 관계, 가족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와 조절, 결정요인, 인지수준, 디스트레스
	가정경제	재무관리, 연금, 시장대체지출비, 기여도 및 맞벌이 요인, 경제생활주도권, 가계제정 의사소통, 재정권력 평등도 인지, 소비형태
	가사노동	가사노동관리의 현상향, 가사분담, 참여실태, 역할의식, 가사역할수행
	시간관리 및 가정경영	시간분배, 시간부족, 생활시간분석, 노동시간분석,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여가	여가실태, 영향요인
	정책 및 사회제도적	아동양육지원, 맞벌이 가정 사회적 지원, 가족친화적 정책, 지원서비스 요구도 및 필요도
실제적 접근(활용)	교육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 일-가족 균형, 역할긴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모형개발, 부모교육
기타	주거	가사공간, 코하우징 제안, 주생활 특성 및 요구
	심리상황	우울과 성격유형(MBTI), 성격분석
	은퇴 후의 삶	은퇴연령예측 및 관련변인
	고용구조 및 계층의식	고용구조, 계층의식과 여성의 일

<표 1>에서 제시한 준거들을 기준으로 좀 더 명확하고 세밀하게 연구 분야를 구분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연구자가 여러 번의 의견조정과 개략적인 기준틀 마련을 위한 과정이 다음 <표 2>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2> 논문분류과정

분류과정	방법	기준
1차 분류	전체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별분류	제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연구자의 전공분야를 참고함
2차 분류	2명의 연구자 공동 확인	1차분류 자료를 토대로 각 연구분야에 포함될 내용을 세밀히 구분함
3차 분류	2명의 연구자 공동 확인	기준틀에 알맞은지 최종점검 후 분석

진행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족의 여가와 같은 주제는 가정자원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시간관리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족의 시간관리는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갈등요인이 될 소지가 높으며, 지금까지의 시간관리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대부분 생활시간 분석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시간관리 영역에 포함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요즘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서의 여가시간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으며, 본 논문 역시 현 시대에 알맞은 아동, 가족차원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부모교육 접근방법 창출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여가분야를 시간관리와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IV. 연구동향 분석

1. 맞벌이 연구의 주제별, 시대별 경향

맞벌이를 주제로 연구한 동향을 주제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초반에는 12편에 불과하던 논문들이 199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현재 총 103편의 논문

이 발표되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증가가 예측된다.

주제별 분류를 시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적용 분야인 대상적 접근의 논문이 4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접근(33.0%), 기타(14.6%), 실제적 접근(3.9%)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 상황으로 야기되는 적용분야에 비해 실제적 접근 분야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중분류를 기준으로 파악해보면, 먼저 이론적 접근분야에서 삶의 질 및 만족도 영역이 20.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맞벌이 가족의 삶의 질 및 관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이론적 접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 순서로 나타난 아동복지감(4.9%), 생활실태(2.9%), 건강가정(2.9%), 공평성(1.9%) 등은 삶의 질과 만족도 조사 등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삶의 질 및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다른 연도에 비해 이론적 접근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 기간이었다. 또한 최근에 활발한 연구를 보이는 영역은 건강가정 부분으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부담 등 맞벌이 가족의 갈등요인 등과 연결하여 가족건강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는 가족과 아동 분야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족의 건강성과 관련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와 연계하여 발전가능 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맞벌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효과 검증, 건강가정사의 맞벌이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 등 건강가정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측정을 포함하여 더 실제적으로 포괄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대상적 접근에서는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다룬 연구가 11.7%로 가장 많았는데, 대표적인 현대 가족의 모습인 핵가족에서 어느 때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논문들에서 부부관계가 중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맞벌이 여성들에게 가정관리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는 가사노동 분야(8.7%)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맞벌이의 중요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인 가정경제 분야(7.8%)와 맞벌이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현대사회에서 부각되는 자녀양육 분야(7.7%)가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정책 및 사회제도적 분야(6.8%)는 1-2편씩 연도별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이후 현재까지 3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속도에 비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전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가족정책인 ‘건강가정정책’이 발표된 2004년 이후 미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던 맞벌이 가족 대상의 연구들이 정책 및 제도 등의 거시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부모역할 분야(3.9%)와 여가 (1.9%)에 대한 연구는 맞벌이 대상별 접근에서 타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하여 아직까지 맞벌이 가족의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실제적 접근(활용)편에서 다룬 중분류는 교육프로그램 영역 하나인데, 이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맞벌이를 주제로 작성된 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족을 위한 실제적, 활용적 접근의 주요방법인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맞벌이 연구들이 이론적인 접근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실천현장에서 맞벌이 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노력 또한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프로그램 방법 외에 코칭접근, 멘토링 등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연구하여 다방면으로 맞벌이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영역으로는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맞벌이 가족의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조사 등을 포함한 주거분야, 그리고 맞벌이 부부 성격검사 및 심리적 안정성 파악, 은퇴연령 예측요인 및 관련 요인 측정, 고용구조와 계층의식 조사 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표 3> 주제별, 시대별 논문 게재 편수

대분류	중분류	90-94	95-99	2000-04	05-07	합계(%)
이론적 접근(이론)	삶의 질 및 만족도	2	8	10	1	21(20.4)
	아동복지감	-	1	3	1	5(4.9)
	공평성	-	-	2	-	2(1.9)
	생활실태	2	-	1	-	3(2.9)
	건강가정	-	-	-	3	3(2.9)
	소계	4	9	16	5	34(33.0)
대상적 접근(적용)	자녀양육	-	1	4	3	8(7.7)
	부모역할	0	3	1	0	4(3.9)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5	6	1	-	12(11.7)
	가정경제	-	5	2	1	8(7.8)
	가사노동	2	2	4	1	9(8.7)
	시간관리 및 가정경영	-	1	3	1	5(4.9)
	여가	-	1	1	-	2(1.9)
	정책 및 사회제도적	1	2	1	3	7(6.8)
	소계	8	21	31	11	71(48.5)
실제적 접근(활용)	교육프로그램	-	2	-	2	4(3.9)
	소계	0	2	0	2	4(3.9)
기타	주거	-	1	1	3	5(4.9)
	심리상황	-	1	1	-	2(1.9)
	은퇴 후의 삶	-	-	-	1	1(1.0)
	고용구조 및 계층의식	-	1	-	1	2(1.9)
	소계	0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0(14.6)
합계		12	35	35	21	103(100.0)

2. 맞벌이 주제의 연구방법 경향

맞벌이를 주제로 조사한 연구방법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 경험적 연구, 실천적 연구로 방법론을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험적 연구가 87.4%로 가장 높았는데, 그 중 설문조사 방법(81.5%)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심층면접(3.9%)로 나타났다.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난 특별한 방법적 접근은 맞벌이 부부를 그룹으로 모집하여 인터뷰를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과 주거분야에서 설문조사 후 실험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원하는 최적의 공간을 설계하려는 조사와 실험이 병행된 연구방법이 있었다. 경험적 연구방법에 비해 전체 103건 논문 중 9건을 차지한 이론적 분야와 4건의 실천적 분야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서 연구방법이 한쪽으로 편중됨을 알 수 있다.

각 분야를 시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이론 분야는 전체 연구방법 중 8.7%를 차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문헌고찰과 2차 자료 분석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주로 2차 자료 분석은 생활시간 분석이 다수였다. 문헌고찰 방법은 소수이지만 꾸준히 매 기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2차 자료 분석은 2004년 이후에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방법의 대부분이 설문조사 방법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원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연구방법별 논문게재편수

분류	이론		경험				실천	합 계(%)
	문헌 고찰	2차 자료 분석	설문 조사	심층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실험	프로그램개 발	
논문수	6(5.8)	3(2.9)	84(81.5)	4(3.9)	1(1.0)	1(1.0)	4(3.9)	103(100)

<표 5> 연구방법별, 시대별 논문게재편수

분류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7	합계
이론	문헌고찰	2	1	2	1	6(5.8)
	2차자료분석	-	1	2	-	3(2.9)
경험	설문조사	10	30	29	15	84(81.5)
	심층면접	-	1	2	1	4(3.9)
	포커스그룹 인터뷰	-	-	-	1	1(1.0)
	조사+실험	-	-	-	1	1(1.0)
실천	프로그램 개발	-	2	-	2	4(3.9)
합계		12	35	35	21	103(100)

다음으로 경험 분야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와 실험 병행 등으로 나뉘며 그중 설문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설문조사는 매년 꾸준히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심층면접은 1995년 이후 매 기간마다 한 두 번씩 이용되는 방법이며, 세부 전공 역시 주로 양적 연구방법보다 질적 연구방법을 선호하는 여성학 분야로 치우쳐있어, 앞으로 맞벌이 가족 대상자들을 위한 심층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조사와 실험을 병행하는 방법은 2005년 이후 각각 한 건씩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경험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방법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분야는 전체 연구방법 중 3.9%를 차지하여,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실천분야의 연구가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실천현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분야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맞벌이 가족을 위한 실천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V. 맞벌이 주제 연구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이제까지 1990년대 이후 맞벌이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들을 세부주제별, 시대별로 파악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맞벌이 주제 연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맞벌이 분야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하며, 발전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인접학문들과의 연계 및 발전적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50.1%를 차지하였고, 2006년 현재 맞벌이 부부는 43.9%로 나타나고 있다(사회통계, 2006). 이렇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족은 사회와 가족의 의식은 대부분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사고들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개인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형태의 변화와 양적 증가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정서적 혼란스러움과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맞벌이 가족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각 분야의 학문에서 맞벌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살펴본 맞벌이를 주제로 다루는 대표적인 학문들은 가족학, 아동학, 가정관리학, 여성학, 소비자 경제학, 주거학 등을 들 수 있다. 비교적 다양한 학문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맞벌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몇몇 전공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론적 접근과 대상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인 접근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주제도 다양화, 세분화되지 않고 기존의 연구주제들에 조금씩 변화를 주어 발표하고 있는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진정한 현상과악도 어려울 수 있는 실정이다. 연구방법 또한 그리하여 설문조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천적 접근방법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 한 가지 연구동향 분석결과 아쉬운 점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연합하여 더 많은 효과와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학제간의 연구도 거의 없었다.

물론 맞벌이 가족이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이론적 기반이 정립되어야 그 분야의 학문적 진보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현 시대에 존재하는

학문이란 이론적 발전과 더불어 실제적인 실천적응분야가 널리 알려져야 그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실천적 분야에서의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맞벌이에 대한 실천적 분야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공자들이 모여 공동 연구에 뜻을 두고 있는 학회 등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가족현상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학회들이 꾸준히 실천적 접근을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분야로 가족복지 분야, 부모교육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연구들이 가족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큰 범위 안에서는 가족복지 분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 학계에서는 10년 전부터 '한국가족복지학회'가 창립되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였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는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재정립에 대한 부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3년 '한국부모교육학회'가 창립되어 바람직한 부모교육의 토착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가족분야의 대표적인 실천프로그램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영역 중 가족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꼽히고 있으며(박수선, 2006; 정현숙, 2007), 앞으로 가족 안에서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되는 것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제대로 된 부모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대사회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교육받으며, 지속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가족 안에서도 세대차이가 일어나고 개인주의와 집합주의가 혼재하는 이 상황에서 부모로써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부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부모들이 쉽게 이러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한국부모교육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사, 부모코치사 제도이다. 이것은 부모에게 자격제도를 두어 차등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에게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이러한 학회의 움직임들은 맞벌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모델이다. 연구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주제로 어느 정도 다양한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을 개발하여 왔으며,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비교적 안정화된 상태이다. 이에 비해 실천적, 활용적 분야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현장과 연계하는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등에만 초점

을 두는 미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구조라는 거시적 틀과 연계하여 그 맥락 안에서 맞벌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본질, 성역할에 대한 고찰,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 등 맞벌이 가족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적 연계가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진정한 분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2. 실천적 분야에 대한 접근과 현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제까지의 맞벌이 주제의 연구들은 실천적 분야에 대해 소홀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천 분야에서도 대부분 프로그램 개발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앞으로 맞벌이 가족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에 알맞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맞벌이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야기되는 주말부부, 자녀가 조부모와 사는 조손가족 형태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연구 주제와 대상을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다.

맞벌이 부부는 시간이 부족하고 행복한 가족에 대한 기대 또한 절실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한 실천방법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실천적 접근 중 대표적인 방법이 코칭접근이다. 코칭접근이란 교육프로그램처럼 일정기간 꾸준히 한 집단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이 코치와 만나 질문을 통해 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립심을 기르고 스스로의 자기정체성을 찾는 과정으로 현대적 상황에 매우 알맞은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실천분야가 이렇게 미비한 이유에는 일반 맞벌이 부부들이 실제 도움이 될 프로그램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진입장벽이 존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칭 접근은 연구자나 전공자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실천접근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앞으로의 맞벌이 가족을 위한 실천적 접근시 매우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통계자료를 볼 때 맞벌이 가족 증가 현상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1995년 48.4→2006년 50.3) 더욱더 각 가족의 특성을 살리고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한 필요성에 부합하여야 맞벌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제도적, 정책적 발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학문의 장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이제 실천의 장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도 독자적으로 한 분야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분야

가 서로 협력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3.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서 살펴보면, 맞벌이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학계 및 매스컴 등에서 대두되는 쟁점들은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최근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재정립된 ‘모성보호법’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업과 협의하여 세부조항들이 현실화, 구체화 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개정안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육아휴직기간이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족과 구성원의 욕구 파악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기반으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근 ‘육아돌보미’ 사업을 시작하여, 맞벌이 여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육아정책 확장에 힘 쏟고 있다.

이러한 맞벌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움직임은 가정 내에서 여성전담으로 여겨졌던 가사노동과 관련된 연구영역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논의와 평가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와 양성평등 문화를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가족친화적 제도 정착도 맞벌이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지원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에서 제기되는 바람직한 맞벌이 가족모델인 ‘일-가정 양립과 균형’의 주제도 결국 가족과 사회전체의 인식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훌륭한 제도적 지원도 그 효과를 다하긴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후적, 잔여적 복지가 아닌 참여적, 예방적, 제도적 복지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가족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가족에 의한’ 정책을 시도하여 가족 중심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가족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실천의 장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보육지원센터 등 국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준비된 전문가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대표자가 되어 맞벌이 가족을 위한 실천의 장이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예방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전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 그 역할을 다한다면 맞벌이 가족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수립 및 실천성 확보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공인숙(2006). 아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창립 30주년기념 특별호, 41-47.
- 박수선 · 김명자 · 계선자 · 김연화 · 박미금 · 송말희 · 유지선 · 이미선(2006). 아는만큼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사회통계(2006). 통계청.
- 여성가족부(2006). 참여정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보고서.
- 이명숙(2006). 가족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창립 30주년기념 특별호, 65-72.
- 이무영(2000).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아동연구 14(1), 373-390.
- 이승미(2006). 가족자원관리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창립 30주년기념 특별호, 83-91.
- 정순희(2006).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창립 30주년기념 특별호, 49-63.
- 정영금(2006). 가정관리학 분야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창립 30주년기념 특별호, 27-39.
- 정현숙(2007). 가족생활교육. 신정출판사, 24-32.
- 조재순(2006). 주거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창립 30주년기념 특별호, 73-81.

Abstract

Analysis on research trend of dual-earner parents

Kang, Ki-Jung* Park, Su-Sun**

The most recent, the number of employed married women is rising rapidly. It brings strong interest in dual-earner family, specially it need to research about parent-children relation in dual-earner fam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esearch trend related dual-earner parents. The object of study is 103 research related dual-earner parents.

The question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grasp that change of research trend related dual-earner parents since 1990. Second, it compare to method of 103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tween 1990 to present, object approach is the highest in related dual-earner parents research, but realistic approach is the lowest.

Second, survey is most highest in research method part, specially, program development method in practice part is very sluggish.

Finally, because realistic approach in research related dual-earner parents is short of expectation, we desire earnestly to exploit practical approach like program development. Ultimately, it bring to improve parent-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ual-earner family, it contribute to increase family welfare.

Key Words : dual-earner parents, analysis the research trend

* Professor,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